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경제) 유엔,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2.7%, 한국 1.8% 성장 전망 2
- '26년 세계 경제는 2.7%로 둔화, 한국은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에 기인해 1.8% 성장 전망

₩ 경제통상 동향

- (관세) 美,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대상 추가 25%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4
- (반도체) 美-대만, 관세 인하 및 TSMC 투자 확대를 연계한 무역합의 추진 5
- (입법) 美 하원, 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견제를 위한 'Dominance Act' 발의 6

⚖️ 의회법안 동향

- 예산안·에너지 및 수입 관세 등 총 5건 7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8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9

📅 워싱턴 D.C. 주요일정

1.14(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월 미국 소매 판매(U.S. retail sales, delayed report)• 11월 근원 생산자물가지수(Core PPI, delayed report)
1.1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2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Initial jobless claims)
1.1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 워싱턴 D.C. 포커스

(경제) 유엔,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2.7%, 한국 1.8% 성장 전망

1. 개요

□ 유엔무역개발회의, 세계 경제 상황 및 2026년 경제 전망 보고서* 발간(1.8)

*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 UN 경제사회국(DESA),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5개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

- '25년 세계 경제는 관세 충격에도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26년 2.7%로 소폭 하락 전망

- 유엔, '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5년 2.8%(전망치)에서 '26년 2.7%로 하락, '27년에 2.9%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
- '25년 미국 관세 인상에 앞선 선(先)주문, 재고 축적, 견고한 노동시장 및 소비자 지출이 무역을 뒷받침하며 초기 예상보다 글로벌 무역량은 증대되었으나,
- '26년 무역 및 전반적인 경제 성장은 투자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통화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둔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지역별로는 미국·유럽·일본 등은 안정적 성장, 호주·한국은 성장 가속화,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탄력적 성장을 전망하나 저소득·취약국은 성장 부진 전망

2. 상세

□ 세계 경제 현황 및 '26년 주요국 경제 전망

- '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7%로 안정적이지만, 무역 마찰, 재정 압박,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방 압력 가중 전망
-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에도 성장 탄력을 유지했으나, 높은 공공부채와 투자 부진이 생산성 잠재력 제약, 정책 불확실성·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진전 부진·기후 충격이 주요 하방 리스크로 작용
- AI 발전은 디지털 인프라 중심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제시하나, 효과의 시기·규모·분배 불확실성으로 선진국 편중 및 개발도상국 불평등 심화 우려 제기

- 통화 완화 정책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하지만 △국제 무역 성장 둔화, △높은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 영향. △투자 부진 지속, △재정 여력 제한이 주요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지적
 - '26년 국가별 경제 전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안정적 성장 전망
 - (미국) '26년 미국 경제는 25년 1.9%에서 소폭 반등한 2.0% 성장 전망, 소비 지출과 AI 투자로 성장 탄력성을 유지하나 주택·기업 투자 부진과 순수출 악화로 하방 압력 가중, 노동시장 약화 가능성
 - (한국) '25년 경제성장을 1.1%에서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에 기인해, '26년 1.8%, '27년 2.0%로 성장 전망
 - (중국) '25년 4.9%에서 소폭 둔화해 '26년 4.6%, '27년 4.5% 성장 전망, 미국과 무역 긴장은 완화되었으나, 무역 마찰 재개,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약세 등 위험 상존
 - (유럽연합) '25년 1.5% 성장 후, '26년 1.3%, '27년 1.6% 성장 예상. 외부 충격과 구조적 제약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일본) '26년 0.9%, '27년 1.0%로 성장 전망('25년 1.2%(추정치), 민간 소비는 점진적 회복세 유지, 자동차 제품 수출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제약 가능성 다대)
 - (기타) 개발도상국인 인도(6.6%)는 민간 소비와 공공투자 견인으로 견조, 아프리카(4.0%), 라틴아메리카(2.3%), 최빈국(LDCs 4.6%)은 부채·충격 노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7% 목표 미달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식품 가격 하락 및 임금 상승 둔화에 기인, '24년 4.0%에서 '25년 3.4%(추정치), '26년 3.1%까지 완화 전망
 - 유엔은 지속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최빈국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s)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 ▲ 투자 부진, ▲ 높은 부채 수준, ▲ 팬데믹 이전 대비 지속 저성장 경로 정착 우려, ▲ AI 생산성 향상 불확실성, ▲ 미국 중심 혜택 불균등 등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UNCTAD(링크), 로이터(1.8)

(관세) 美,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대상 추가 25%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 (개요) 이란 사태 관련, 對이란 교역국 대상 관세 조치 검토 가능성 확대
 - 미 행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중국·인도·UAE·EU 등이 잠재적 영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발효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행정명령은 발동되지 않았으며, 이란 내 인권 침해 관련 국제 보고 이후 제기된 대이란 압박 강화 조치로 해석
- (상세) 對이란 제재 연계 관세 조치의 적용 범위 및 주요 교역국 영향 가능성 주목
 - 미국의 對이란 직접 상품 교역은 기존 대이란 제재로 인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4년 기준 對이란 수출은 약 9,020만 달러, 수입은 62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
 - 반면 미국은 중국, 인도, UAE, EU 등 이란과 활발히 교역하는 국가들과는 상당한 규모의 교역을 유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가 이번 관세 위협의 주요 대상국으로 주시
 -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베네수엘라산 원유 구매국을 대상으로 25% 관세 부과를 경고한 바 있으며, 고율 관세 위협을 외교·제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전례 존재
 -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관세 관련 휴전이 논의되었으나,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전례를 감안할 때 미·중 무역합의 이행과 4월 베이징 방문 계획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은 '정당한 권리 수호'를 명분으로 대응 조치 가능성 시사
- (반응) 제재 이행 의지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주목 확대
 - 전 NSC 중동 담당 선임국장 마이클 싱은 이미 對이란 제재가 상당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집행이 엄격하지 않아 이란의 원유 수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새로운 제재 도입 여부보다는 집행·강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
 - 시장·업계에서는 이번 25% 관세 조치의 실질적 영향이 향후 행정명령·세부 지침 발표, 예외 적용과 범위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것으로 관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James Lee
▪ 자료원	폴리티코(1.13), 로이터(1.13), 블룸버그(1.13)

(반도체) 美-대만, 관세 인하 및 TSMC 투자 확대를 연계한 무역합의 추진

- (개요) 美 행정부, 관세 감면을 활용한 대만과의 반도체 투자 협의 고도화
 -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산 수입품 관세율 인하(20%→15%) 및 TSMC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이르면 '26.1월 중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
 - 동 합의는 주요 아시아 우방국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적용해 대만의 통상 조건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국의 국익 및 안보 기여도에 따른 선별적 혜택 부여라는 실용적 통상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
- (상세) 관세 인하 인센티브와 연계한 TSMC의 美 생산 거점 확대 추진
 - (관세 체계 조정) '25.8월 재개된 20% 관세를 15%로 인하하되, 반도체 및 핵심 전자제품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대상으로 별도 관리하여 전략적 유연성 확보
 - (생산선 확대) TSMC는 애리조나 내 최소 5개의 추가 팹(Fab) 건설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기존 계획(6개) 대비 생산 역량을 2배 수준으로 증설하는 조치
 - (안보 리스크 대응) 중국의 대만 관련 군사 활동 확대 등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반도체·자동차·방산 등 주요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고려 반영
- (전망) 美, 역내 안보 환경 변화 속 반도체 현지화·투자 유인 기조 유지
 - 양측은 관세 특례 및 232조 우대 적용과 관련해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세부 이행 방안과 투자 일정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전망
 -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한 관세 예외 적용 방침이 유지될 경우, ▲ TSMC 대미 투자 확대 ▲ 첨단 공정 美 이전 가속 ▲ 중국 리스크를 고려한 공급망 재편 등 美 중심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속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뉴욕타임스(1.12), 로이터(1.13)

(입법) 美 하원, 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견제를 위한 'Dominance Act' 발의

- (개요) 국무부의 에너지 권한 강화 및 공급망 견제를 위한 초당적 법안 발의

- 미 하원의원*, 국무부의 에너지 관련 외교 기능을 재편하고 강화해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우위를 견제하려는 목적의 초당적 'Dominance Act'** 법안 발의

* 영 킴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과 앤 베라(민주당-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

** DOMINANCE Act (Developing Our Minerals Independenc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Energy Security Act)

- (상세) 국무부의 에너지 권한 강화로 동맹국으로부터의 광물 수입 확대를 통한 공급망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우위 견제 목적

- 동 법안은 국무부 내에 에너지 안보·외교국*(Bureau of Energy Security and Diplomacy)을 신설, 에너지 수출 지원, 동맹국으로부터 광물 수입 확대 역할 수행

*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부처 전체 조직의 일환으로 폐쇄한 에너지자원국을 대체

- 에너지국 내 에너지 안보 협약국(Office of Energy Security Compacts)을 신설, 동맹국과 협정 체결, 해당 국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정부 지원 조정 권한 부여

- 국무부는 에너지부, 내무부, 상무부, 국방부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개발금융공사(DFC),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력하여 협약을 이행할 예정

- 또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법제화, △미국 내 광업 교육 강화, △해외 광산공학 교육을 위한 Fulbright 프로그램 신설 등 인적 역량 구축 조치도 포함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목표로 '22년 6월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다자 협력체

- 법안을 공동 발의한 영 킴 의원은 동 법안이 "외교, 자금 조달,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받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으로 중국의 광물 지배를 정면으로 해결할 것" 강조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

▪ 자료원	폴리티코(1.13)
-------	------------------------------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예산안 (1.8)	H.R.6938 (하) (‘26.1.6)	Tom Cole (공)	<p>〈2026 회계연도 상무·법무·과학, 에너지·수자원개발, 내무·환경 세출법안(Commerce, Justice, Science;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and Interior and Environment Appropriations Act, 2026)〉 – 하원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 정부의 과학 연구, 사법기관, 에너지 인프라, 환경 보호 프로그램 등 관련 예산을 다루는 법안 무역대표부 예산은 18% 증가, 중국 등을 겨냥한 수출통제 사무국 예산은 23% 증가
에너지 (1.8)	H.R.6983 H.R.6984 (하) (1.8)	Robert Menendez (민)	<p>〈소비자 에너지 요금 급등 방지법(PRICE Act) 및 데이터 투명성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확산에 따른 전국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비용 급등과 환경 영향을 대응하기 위한 법안 데이터센터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고, EPA와 에너지정보청(EIA)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 및 환경 영향을 조사·공개하도록 규정"
무역 투명성 (1.8)	H.R.6988 (하) (1.8)	August Pfluger (공)	<p>〈무역투명성기구(TTU) 활용 확대 전략 수립 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TU(Trade Transparency Unit) 수를 늘리거나 기능을 확대, 국제 공조 및 데이터 공유·분석을 강화, 무역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 탐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부에 구체적 전략 수립 요구.
	S.3608 (상) (1.8)	Tim Sheehy (공)	<p>**TTU는 미·외국 간 교역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무역 기반 자금세탁, 범죄수익 국외이전 등 무역 경로를 이용한 금융 범죄를 공동으로 적발·조사하는 협력 메커니즘</p>
수입 관세 (1.8)	H.R.6991 (하)	Beth Van Duyne (공)	<p>〈공정무역법(Fair Trade Act) 20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신규 관세를 부과, 특정 품목 군에 대한 기존 관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법안. 대미 무역흑자국에는 15%, 적자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관세 부과 전 대통령은 해당 조치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하원 세입위원회 및 상원 재무위원회와 협의 요구 구체 대상 품목·국가·산업은 향후 세부 내용에 따라 확정될 예정으로, 특정 국가나 전략 산업을 겨냥한 선별적 무역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 미국 동부 시간 1월 13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Trump Tells Iranian Protesters ‘Help Is On Its Way’ (트럼프, 이란시위대에 “지원 곧 도착해”)</p> <p>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시위대에게 “이란 애국자들, 시위를 계속 하라...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다”라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사이버, 경제 등 다양한 이란 제재 방안에 대해 브리핑 바았으며, 이란 정부와의 협상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p>
The Washington Post	<p>Supreme Court appears skeptical of arguments against bans of trans athletes (연방대법원,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출전 금지 조치에 우호적 시각)</p> <p>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주 사건을 심리하며 대법관들은 트렌스젠더 여성의 신체적 차이 등으로 인해 이점을 갖는지에 대한 과학적 논쟁에 집중해. 금지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p>
The New York Times	<p>Six Prosecutors Quit Over Push to Investigate ICE Shooting Victim’s Widow (ICE 사살 미망인 수사 압박에 연방검사 6명 사임)</p> <p>ICE의 르네 굿 사살 사건 관련, 조셉 톰슨 등 미네소타주 연방검사 6명은 법무부의 유가족 수사 방침과 ICE 요원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반발해 사임 결정</p>
CNN	<p>Pentagon bought device through undercover operation some investigators suspect is linked to Havana Syndrome (국방부, 잠입 작전으로 ‘아바나 증후군’ 유발 추정 장치 구매)</p> <p>국방부는 ‘아바나 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치를 잠입 작전을 통해 구매한 후 1년 넘게 시험해 온 것으로 밝혀져. 장치는 수천만 달러를 호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배낭에 들어가는 휴대 가능한 사이즈 인 것으로 알려져</p>
Axios	<p>Over 50 House Dems sign onto Kristi Noem impeachment articles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에 민주당 하원 의원 50여 명 서명)</p> <p>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50여 명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서명해. 이는 민주당 하원의원의 1/4에 달하는 수치로, 1. 의회 업무방해 2. 공공신뢰 위반 3. 사익추구 등을 사유로 들어</p>

* 미국 동부 시간 1월 13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01	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5-51	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50	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2025.12월
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7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	2025.12월
US25-46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	2025.12월
US25-45	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합의	2025.12월
US25-44	美-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5.12월
US25-43	트럼프 정부, 미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제네시스 미션』 출범	2025.12월
US25-42	美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트럼프 관세 플랜 B 전망	2025.11월
US25-41	美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및 예산 합의 관련 주요 동향	2025.11월
US25-40	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및 주요 시사점	2025.11월
US25-39	미국 중·대형 트럭 신규 관세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10월
US25-38	美 무역전쟁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5.10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3 (2025.8.26.)	 워싱턴 통상 전문 변호사가 된 美 신정부 통상정책 대응책은?	
코인사-22 (2025.5.13.)	 미국 통상 전문가가 예측한 트럼프 2기 글로벌 경제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nature.shim@kotra.or.kr	